

사단법인 문학실험실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혼란한 문화 환경 속에서
한국문학의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해,
도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언어 탐구의 작업을
기획하고 실천해나갈 독립 문학 공간입니다

제9회 문학실험실 포럼 최인훈 5주기 기념 포럼

일시 2023. 9. 22(금) 오후 2시
장소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주최 사단법인 문학실험실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9회 김현문학패 수여식 한국문학의 '뜨거운 상징'

일시 2023. 9. 22(금) 오후 5시
장소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주최 사단법인 문학실험실
특별후원 소암장학재단

김현문학패 역대 수상자



『광장』과 그 이후, 최인훈의 문학적 사유와 실험의 흔적들
정영훈 경상대학교 국문과 교수

SF로 읽는 최인훈: 신유물론적 사변 소설『서유기』
연남경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교수

지구적인 것과 행성적인 것: 최인훈의 『태풍』과 두 개의 역사 쓰기
장문석 경희대학교 국문과 교수

바늘 끝 천사_최인훈, 『화두』의 위상학
양윤의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시 황유원 소설 김이설

황유원

1982년 울산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3년 『문학동네』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세상의 모든 최대화』
『이 왕관이 나는 마음에 드네』『초자연적 3D 프린팅』을 펴냈으며,
현재 번역가로 활동하며 『모비 딕』『바닷가에서』『밤의 해변에서 혼자』
『유리, 아이러니 그리고 신』 등 다수의 역서를 펴냈다.
김수영문학상, 대한민국예술원 젊은예술가상,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김이설

1975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나, 2006년 『서울신문』과 『대전일보』의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소설집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들』
『오늘처럼 고요히』『누구도 울지 않는 밤』, 연작소설집 『잃어버린 이름에게』,
장편소설 『나쁜 꾀』『환영』『우리의 정류장과 필사의 밤』,
중편소설 『선화』를 펴냈다.

제1회(2015년) 성기완(시 부문) 한유주(소설 부문)	제5회(2019년) 김경후(시 부문) 박솔뫼(소설 부문)
제2회(2016년) 이제니(시 부문) 김태옹(소설 부문)	제6회(2020년) 신동욱(시 부문) 김 숨(소설 부문)
제3회(2017년) 강 정(시 부문) 서준환(소설 부문)	제7회(2021년) 김 언(시 부문) 윤해서(소설 부문)
제4회(2018년) 신영배(시 부문) 백민석(소설 부문)	제8회(2022년) 신해욱(시 부문) 정지돈(소설 부문)

www.silhum.or.kr